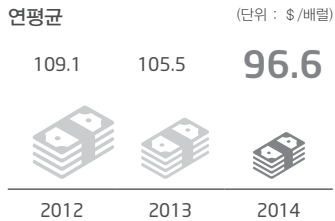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두바이유 가격 변동 추이



* Platts 고시가격 기준

국제 원유시장

2014년 국제 원유시장은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 급증과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상대적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원유공급은 OPEC 국가들이 전년 대비 동일한 생산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비OPEC 국가의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백만 b/d(2.1%) 증가한 93.3백만 b/d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원유수요는 비OECD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유럽과 일본의 경기불황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0.6백만 b/d(0.7%) 증가한 92.4백만 b/d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평균가격인 \$105.5/배럴 보다 하락하여 \$96.6/배럴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연중 최고가격이 \$111.23/배럴, 연중 최저가격은 \$53.60/배럴 등 유가의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산업별 시장 현황

석유산업

석유사업은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 등의 원유수출 정책 및 환율의 영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석유사업의 Value Chain이 원유수입, 제품생산, 수송 및 저유, 제품판매로 구성됨에 따라 원유는 산유국에서 수입하여 선적한 후, 유조선으로 수송하여 정제설비가 있는 지역의 원유저장탱크에 하역·저장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시 직매처, 주유소 및 중간판매자 등에 판매하는 도매와 주유소(또는 충전소)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로 구분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누적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 하였습니다. 차량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항공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종의 경우 LPG차량 감소에 따른 LPG 소비 감소, 보일러 등유 폐지 및 도시가스 보급 등 타연료 전환에 따른 난방용 등유 소비 감소, 중질유 등 비수송용 유종 소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유종 별 소비 추이

(단위 : 천 배럴, %)

구분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중유	납사	LPG	기타
2014 (누적)	822,092	73,475	15,414	144,755	31,094	396,979	89,674	70,701
	(100.0)	(8.9)	(1.9)	(17.6)	(3.8)	(48.3)	(10.9)	(8.6)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4년 12월 기준) / ()안은 소비 비율

화학산업

기초유화사업 | 기초유화사업은 나프타(Naphtha)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계 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소재사업으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 섬유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기술선점 효과가 높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에 민감하며, 세계 경제 및 수급조건에 따라 호·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화학소재사업 | 화학소재사업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자일렌 등의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고무, 1,4BDO(Butanediol)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전자, 건설, 제약, 의류소재 등 주력 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 및 관련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민감한 구조입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유탄유산업

유탄유산업은 주요 원재료인 유탄유(Base Oil)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유탄유 기유는 원유 정제과정 중 고도화 설비인 Hydrocracker에서 생산되는 미전환유(UCO: Unconverted Oil)를 추가 공정(감압증류, 촉매)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정유회사 이외에는 유탄유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유탄유 시장은 품질 및 성상에 따라 Group I, Group II, Group III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시장 별로 상이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및 사용수명이 열위인 유탄유(Group I) 시장은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향후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급기유(Group II/ III 등) 시장은 환경규제와 수요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유탄유 시장은 정제설비와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서 대부분 생산 제품은 기타 아시아 지역, 미주 및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탄유 시장은 유탄유공업협회 정회원 등록업체만 19개, 비등록 업체 포함 약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체로는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동남석유공업, 한국발보린, 장암칼스, 에쓰오일토탈 유탄유(STLC),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해외 유탄유 완제품 시장의 경우 Shell, ExxonMobil, BP, Chevron, Total, PetroChina, Sinopec, Fuchs, Ashland(Valvoline) 등 다수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이 유탄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현지 유탄유업체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신규 진출 및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정제 마진 및 PX 시황 약세 지속 등 2014년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740억 원 감소한 65조 8,65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6,377억 원 감소한 (2,31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연초 배럴 당 107달러를 상회하던 국제 유가는 북미 셰일 오일 생산 증가 및 OPEC의 생산량 수준 유지 등에 따른 전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연말 배럴 당 54달러까지 약 50%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 개발 사업의 손익도 악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국제 유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 시장의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잉여에 따른 수급 약세 및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 잉여 개선 신호가 나오거나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중·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영업손익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석유 사업	56,588,893	49,896,814	49,056,300	279,070	59,662	(999,031)
화학 사업	11,835,945	12,111,982	12,635,174	770,567	866,967	359,189
유탄유 사업	2,901,055	2,786,124	2,981,801	313,224	155,365	289,851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268,572	1,244,385	1,191,994	355,424	324,424	118,714
계	72,594,465	66,039,305	65,865,269	1,718,285	1,406,418	(231,277)

석유 사업

석유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2013년 49조 8,968억 원에서 49조 563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9,9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587억 원 감소하여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14년 석유 사업은 역대 주요 수입국의 수요 부진에 따른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되고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손실 등의 영향으로 손익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수요량 대비 높은 공급량으로 인하여 유가 하향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제시설(Refinery) 운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술 차별화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레이딩(Trading) 사업 강화, 글로벌 시장 허브 구축 등의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에너지 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화학 사업

화학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2013년 12조 1,120억 원에서 12조 6,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592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8.6%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화학 사업 부문에서는 올레핀 시황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아로마틱 사업의 대표 제품인 PX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등 역대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집중 및 PTA 등 Downstream 시황이 지속적으로 약세하여 2014년 PX Spread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PX 시황은 신증설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제한적으로 개선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등에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용제 제품과 고부가 폴리머 제품 생산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유탄유 사업

유탄유 사업부문의 2014년 매출은 2조 9,81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3년 1,554억 원에서 2014년 2,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6.5%,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비용 감소로 기유 Spread가 상승하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 시황은 2014년 대비 신증설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4월 다국적 에너지기업 Repsol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스페인에 Group III 유탄유 공장 건설하여 2014년 9월 상업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Group III 기유시장 점유율은 35% 내외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 및 Capacity 확보를 통해 기유 시장 Market Leader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1조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하락하였고, 영업이익은 1,187억 원으로 전년 3,244억 원 대비 약 63.4% 하락하였습니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개발 사업의 매출 및 이익 감소입니다. 2015년 석유개발 사업 실적은 베트남 및 북미 광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및 저유가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